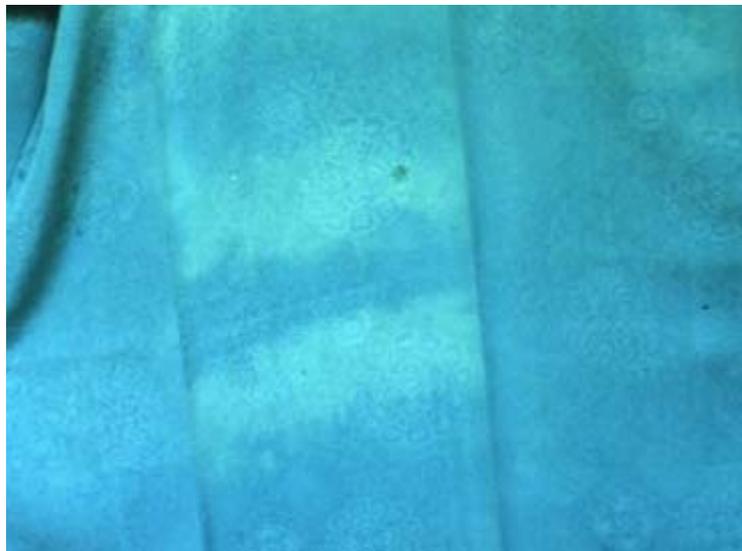


## 97. 섬유제품 불량 상담 Q&A

### - (4) 잔류물에 의한 변색 -

**Q.** 2년 전에 만든 의복을 처음으로 착용하고 나갈 경우 바탕색이 층층으로 얼룩져 있다. 구입할 때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원인은 무엇일까?

**A)** 변색의 원인으로서는 원단 상태에서의 잔류물(정련, 염색 등의 잔류물)이 경시변화에 의해 염료에 영향을 주어 변색된 것으로 사료됨.



해설)

- 이러한 불량은 보관 중에 서서히 변화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원단의 잔류물에 의한 변색의 일종이라고 생각됨. 이 사례에서는 뒷 몸판에서 바탕색이 층층으로 얼룩져 있고, 등슬기의 봉제선에서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경시적으로 변색해 가기 때문에 완성시 또는 구입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 특징임.
- 이와 매우 유사한 사례로 무늬의 주변부위는 변색되지 않고, 그 이외의 부분이 변색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탁에 의하여 원단에 있던 무늬부분의 잔류

물이 수세 탈락되고, 무늬부분 이외에 잔류되어 있던 변색 원인물질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색상에 변화를 주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됨.

- 그 외 침염품에서 한 면에만 특이한 형태로 변색되는 사례도 있는데, 침염에서는 색 맞춤을 하기 때문에 염색 도중에 원단의 말단 부분을 드라이나 증기 파이프로 건조시키는데 색 맞춤을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둥근 얼룩 상태로 변색됨과 동시에 한쪽 면이 접힘과 같은 형태로 변색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건조시에 물과 함께 원단 상에 잔류하고 있던 변색 원인물질이 건조가 빠른 부분으로 이동하여 그것이 경시 변화되어 나중에 변색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임.
- 한편, 완성된 후의 부착물에 의해 변색되는 경우가 있는데, 완성 후의 부착물로서는 주로 손의 땀 등이 부착되어 이것이 경시변화로 변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앞무릎 위나 소매부리 부근에 변색이 집중되는 현상을 볼 수 있음. 이 경우 pH가 다른 각종 약제에 의한 변색의 재현시험으로 확인이 가능함.